

News

서민 고금리 부담 완화...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디지털타임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 관련 법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으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

2월 신용대출 금리 0.15%p ↑...주담대도 6개월째 상승

연합뉴스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2월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한국은행의 30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 전월 대비 2bp 하락 하지만 가계대출 금리 가운데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46%에서 3.61%로 0.15%p,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63%에서 2.66%로 0.03%p 상승

정치권 압박에 꼬이는 가계대출 대책...난처한 금융당국

뉴시스

현재 청년층·무주택자 규제 완화를 놓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금융당국은 난감한 상황.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현 "금소법 준비기간 짧았다...문제 조속히 수습할 것"

조선비즈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시장 혼선에 대해 준비기간이 짧았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조속히 수습할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지난 25일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투자 상품 가입시 상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를 읽고 이를 녹취하기 위해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금융당국 "미니보험사로 출발해 종합보험사로 허가 가능"

한국경제TV

금융당국은 일명 미니보험으로 불리는 소액단기보험 설립과 관련해 "초기 소액단기보험사로 출발해 그 규모가 확장될 경우 종합보험사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액단기보험은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하며, 자동차 등 고액의 상품을 제외한 소액 상품을 다룰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책정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이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제재안을 의결

국내 보험사들, 4월 '대격변' 예고

시사포커스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집단소송의 변론이 내달 2일 진행. 당초 지난 10일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연기. 한화생명도 4월 1일 자회사형 법인보호대리점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킨다. 540여개의 영업기관, 1400여명의 임직원, FP만 2만명에 달하는 대형 판매전문회사로 도약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이투데이

금융당국이 다음달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위한 2차 심사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이 규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곳 모두 대주주적경성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난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보류 판정을 받고 허가가 잠정 중단된 상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